

Philipp Jundt, Flutist



©BOM ARTS PROJECT

가곡, 바이올린 곡 등을 새롭게 편곡하며 다양한 플루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플루티스트 필립 윙트는 따뜻한 음색과 역동적인 연주로 전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아시아, 유럽, 북미를 누리며 다양한 연주를 펼쳐 오고 있는 그는 콘서트는 물론 교육과 음악 편곡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6년 발매될 요하네스 브람스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가곡을 편곡하고 있다.

솔로리스트로서 그간 스위스 톤 할레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취리히, 베른 체임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뮌헨, 리투아니아 체임버 오케스트라, 캄머 오케스트라 바젤, 더 숄레비히-홀스타인 음악 페스티벌 체임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 윈드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연주하였으며 콜

린 데이비스경, 크리스토프 에센 바흐, 발레리 게르기에프, 알렉산더 라차레이, 파비오 루이지, 로린 마젤, 주빈 메타, 크리스토프 펜데레츠키, 헬무트 릴링, 유카-페카 사라스테, 제프리 테이트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또한 KBS 교향악단의 수석 플루트 주자이자 뮌헨 필하모닉,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바이에른 주립 오케스트라 등의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서울 시향의 객원 단원으로도 활동하였다.

2015- 2016시즌에 필립 윌트는 뉴 취리히 오케스트라와 함께 로드리고의 플루트 협주곡 "전원"을 연주하며 스위스와 서울,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순회 투어를 진행하였고 특히 도쿄 산토리홀 무대에 데뷔하였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난 7월에는 스위스 베기스에서 개최된 제임스 골웨이 플루트 페스티벌에 참여하였고, 8월에는 이탈리아 살레르노 국제 페스티벌, 9월에는 이탈리아 국제 플루트 콩쿠르 "세베리노 가첼로니"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필립 윌트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하게 되는 제1회 곤지암 뮤직 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행사의 일환으로 제임스 골웨이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이다.

그의 첫 음악 레슨은 키요시 카사이 선생으로부터였고 이후 오렐 니콜레, 안드레스 아도리앙을 사사한 후 피츠버그와 보스턴에서는 잔 박스트레서를 사사하였다. 뮌헨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마치고 동시에 뮌헨의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와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필립 윌트는 이미 대학시절부터 젊은 작곡가인 마르코 헤루텐슈타인과 바바라 크롤링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이들과 함께 " 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과 "Noodin"이라는 작품을 탄생시켰고, 이후 이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미국, 캐나다, 스위스에서 순회 콘서트를 펼쳤다.

그는 독일의 솔레비히 홀슈타인 뮤직 페스티벌,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국제 실내악 페스티벌, 다보스의 영 아티스트 콘서트, 산타바바라의 아카데미 오브 웨스트, 스위스의 Murten Classics, 독일 라인가우 뮤직 페스티벌, 일본의 퍼시픽 뮤직 페스티벌 등 주요한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연주하고 있으며 실내악 연주자로서 닐스 윈케마이어, 세바스찬 클링어, 프레디 캠프, 트리오 올리오, 파비오 디 카솔라, 에스더 호페 등과 함께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그리스, 뉴욕, 그리고 이스라엘 라말라의 바렌보임 사이드 재단 등에서 열리는 각종 마스터 클래스의 초청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2012년에 첫 데뷔 음반을 발매하면서 많은 라디오방송과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특히 캐나다의 CBC 방송에는 에르고 앙상블과 함께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2008년부터 강남대학교 독일 바이마르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필립 윌트는 현재 한국 플루트 교육자 협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알버트 쿠퍼 플루트를 사용하고 있다.

contact : pr@bomarts.co.kr

tel. _+82 2 737 0708 fax _+82 2 737 0778

www.philippjundt.com



Guardian Angel 2016 SONY CLASSICAL